

# 북한 전쟁서사에 나타난 애정담의 번역 양상 연구\*

- 북한 대외홍보지 『새조선』의 중국어 번역을 중심으로 -

등천(Deng Qian, 鄧倩)\*\*

## 〈차 례〉

- 들어가며: 전쟁터에서 꽃피는 사랑 이야기
- 「불타는 섬」: 분대장과 통신수의 애정담, '전우애'로 치환되는 사랑
- 「사과나무」: 부상병과 간호병의 애정담, '보상'으로 변조되는 사랑
- 「고압선」: 영예군인의 후일담, '치유'를 지향하는 사랑
- 나가며: '정동적 주체'에서 '관념적 주체'로

## [국문초록]

본고는 「불타는 섬」, 「사과나무」, 「고압선」에 나타난 애정담에 주목하여 원천텍스트와 『새조선』의 중국어 번역텍스트의 차이를 대조함으로써 북한 영웅서사에 형상화된 사랑의 양태와 번역의 양상을 검토했다. 「불타는 섬」에서는 해안포 분대장과 통신수의 애정담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희생을 각오하는 동력으로서의 '사랑'을 제시한다. 「사과나무」에서는 부상병과 간호병의 애정담을 통해 부상한 영웅을 간호하는 사명감으로서의 '사랑'을 형상화한다. 「고압선」에서는 영예군인의 후일담을 통해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상징으로서의 '사랑'을 서사화한다. 이처럼 전쟁터에서 꽃피는 영웅의 사랑 이야기는 『새조선』의 번역을 통해 또 다른 모습으로 중국 독자와 만나게 되었다. 중국어판 「불타는 섬」에서는 남녀주인공의 사랑은 '전우애'로, 「사과나무」에서는 영웅의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고압선」에서는 제대군인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보조 수단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전쟁 중에 영웅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전쟁 끝난 후에 영웅의 노동력을 회복하게 해주는 '사랑'이아말로 대외홍보의 목표에 부합하는 영웅 애정담의 정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연구는 2022년도 한국학 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AKS-2022-R-122).

\*\* 중국해양대학 전임강사

또한 원천텍스트와 번역텍스트의 차이를 통해 한국전쟁기 북한 대외홍보의 장에서 미학과 이데올로기의 길항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황건을 비롯한 문학가들은 영웅의 다양한 정동 양상을 리얼하게 형상화함으로써 미학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포 독자와 '정동적 연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새조선』의 번역주체에 있어서 '정동적 연대'보다 중국 독자와의 '이데올로기적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은 영웅 내면에 나타난 불안, 불만, 오해 등 부정적인 정동을 은폐하고 그 빈자리에 애국심, 사명감과 같은 관념들을 주입했다. 그 결과, 애정담에 나타난 남녀주인공들은 입체적인 내면세계를 지닌 '정동적 주체'에서 영웅주의를 구현하는 '관념적 주체'로 재형상화되었다.

[주제어] 한국전쟁, 북한 문학, 중국어 번역, 애정담, 사랑, 정동, 『새조선』, 『불타는 섬』, 『사과나무』, 『고압선』

## 1. 들어가며: 전쟁터에서 꽃피는 사랑 이야기

한국전쟁 기간 북한 문학자들은 전장에서 헌신적으로 싸운 수많은 전사들의 영웅서사를 다수 창작했다. 이런 작품들은 북한의 대외홍보 기관지 『새조선』을 통해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로 번역되어 북한 전쟁서사의 국제적 맥락을 형성했다. 『새조선』의 번역텍스트와 원천텍스트를 상호텍스트로 삼아 양자 간의 차이에 드러난 미학과 이데올로기의 길항 관계를 살펴보는 작업은 1950년대 북한 문학을 재평가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 논문은 『새조선』에 게재된 영웅서사에 나타난 애정담에 주목하여 남녀 영웅 간의 '사랑'이 형상화되고 번역되며 변용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냉전의 최전선에 처한 북한은 일찍부터 대외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1949년 12월에는 “세계 인민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며 그들의 동정과 지지를 쟁취하자”는 김일성의 지시 아래 신조선사(新朝鮮社)가 설립되었다. 이듬해 1월에는 신조선사에서 러시아어판 대외홍보 기관지 『Новая Корея』이 창간되었다.<sup>1)</sup> 1951년 1월부터는 중국어판 『新朝鮮』과 영문판 『New Korea』

1) 러시아어판 표지에는 '새조선'이라는 표기와 러시아어로 표기된 잡지명 Новая Корея가 병기되어 있다. 제목을 제외하고 잡지의 기타 내용은 전부 러시아어로 편집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어판과 영어판 『새조선』의 표지에도 두 가지 언어로 잡지명을 표기하고 나머지 내용은 해당 언

가 동시에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1951년 1월에 전쟁으로 인해 휴간되었다가 1952년 8월에 다시 복간되었다. 1950년대부터 중국어판 『새조선』은 기증·교환 등의 방식으로 중국 주요 기관 및 대학 도서관에 배포되어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에게 널리 읽혔고, 중국 민중이 ‘항미원조’를 인식하고 상상하는데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sup>2)</sup>

『새조선』은 수령 강화(講話), 정론, 신문기사와 문학작품으로 구성된 종합 월간지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북한 대외홍보의 지향점이 달라지면서 『새조선』의 편집진과 내용 구성도 수차례 변화를 거쳤다. 필자의 검토에 의하면 1950년대 『새조선』의 주된 홍보 목표는 1953년 12월을 분수령으로 삼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53년 12월 전에 간행된 『새조선』은 평양의 ‘해방탑’ 그림을 표지 가운데에 세워 두고 ‘조국해방전쟁’의 정당성과 정의성을 소련, 중국, 영어권 독자에게 역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54년 1월부터 표지에 다양한 그림이나 사진이 등장하면서 『새조선』의 주된 홍보 방향은 전시 선전에서 전후 건설로 이행되었다. 본고에서는 한국전쟁기 중국어판 『새조선』의 홍보 목표와 번역 양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연구 기간을 1951년 1월부터 1953년 12월로 한정 지어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1951년 1월부터 1953년 12월까지 중국어판 『새조선』 문예란에는 총 32편의 시와 24편의 소설이 기획 번역되었다. 이들은 동시대에 간행된 『문학예술』,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 주요 매체에 실린 문예작품을 선정해서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처럼 번역진이 전쟁통에 힘겨운 번역 작업을 수행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새조선』에는 원저자의 이름만 밝히고 번역자의 이름은 전부 익명으로 처리했다. 『새조선』에 게재된 작품은 번역자 개인의 동기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예품’이기보다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편집진과 번역진이 공동으로 생산한 대외홍보용 ‘선전물’이다. 이처럼 『새조선』의 번역을 통해 ‘문예품’에서 ‘선전물’로 변모된 과정에는 미학과 이데올로기의

어로 편집한 대외홍보용 외국어 잡지이다.

2) 전쟁이 끝난 후에도 『새조선』이 계속 간행되고 1975년 『금일조선(今日朝鮮)』으로 제호를 변경하여 2021년 3월호까지 중단되었다. 등권,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대(對)중국 번역 기획 - 북한의 대외홍보 기관지 『새조선』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79호, 한국문학연구학회, 163-164쪽.

공모(共謀)와 길항이 내포되어 있다. 『새조선』의 독특한 번역 방식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편집진과 번역진을 통틀어서 ‘번역주체’라고 규정한다.

한국전쟁기 『새조선』 문예란에 수록된 24편의 소설은 인민군의 전투 과정에 집중한 영웅서사, 북한 인민을 형상화한 수난·저항서사, 조소·조종의 친선 관계를 다룬 우호서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3)</sup>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조국 통일과 인민의 행복이라는 대의에 헌신하는 ‘공화국 전사’들의 이야기<sup>4)</sup>를 그린 영웅서사였다. 이 가운데에 남성 영웅과 함께 싸운 여성 인물의 서사를 담아 남녀 영웅 간의 사적 감정을 다룬 애정담도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 『새조선』에 실린 대표적인 영웅-애정담은 다음과 같다.

표1. 『새조선』에 게재된 영웅-연애담(1951.1-1953.12)

권호	작품명	저자 및 저본	주요 인물	주요 내용
1952.10	燃燒著的孤島	황건, 「불타는 섬」 『로동신문』 1952.1.20.-21	해안포 분대장 리대훈, 여자 통신수 김명희	월미도 방어전-남녀주인공 애정담-전부 희생
1953.3	蘋果樹	김영석, 「사과나무」 『문학예술』 1953.1	기관총 사수 리찬식, 여자 간호병 김현숙	전투-남성영웅 부상-치료-남녀주인공 애정담-남성영웅 전선 복귀
1953.9	高壓線	이상현, 「고압선」 『문학예술』 1953.8	영예군인 진수, 옛 애인 원희, 옛 친구 응선	영예군인 귀향-노동현장 복귀-옛 친구, 애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삼각관계-화해

3) 각 유형의 소설 작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영웅서사(15편): 한철야의 「金斗燮(김두섭)」 및 「黃草嶺(황초령)」, 이기영의 「復仇의 記錄(복수의 기록)」, 황건의 「燃燒著的 島(불타는 섬)」 및 「他的 歸路(그가 돌아간 길)」 및 김만선의 「黨證(당증)」, 현덕의 「可愛的人(아름다운 사람들)」, 박웅걸의 「特等電話員(상급전화수)」, 윤세중의 「兩個戰士(구대원과 신대원)」, 윤시철의 「司號員의 功勳(사팔수의 공훈)」, 조정국의 「火花(불꽃)」, 임순득의 「趙玉姬(조옥희)」, 김영석의 「蘋果樹(사과나무)」, 신룡전의 「海岸炮(해안포)」, 이상현의 「高壓線(고압선)」.

② 수난·저항서사(7편): 한철야의 「狼(승냥이)」, 이복명의 「報仇(악마)」, 최명익의 「機師(기관사)」, 박웅걸의 「渡口(나루터)」, 김형교의 「趙家嶺索道(조가령삭도)」, 박찬모의 「耕田(밭갈이)」, 변희근의 「幸福的人們(행복한 사람들)」.

③ 조중(朝中) 우호서사(2편): 이태준의 「高貴的人們(고귀한 사람들)」, 권정룡의 「渡江(도강)」

4) 유입하, 「1950년대 북한문학과 전쟁서사」, 『동악어문학』 제20호, 동악어문학회, 2007, 200쪽.

한국전쟁기는 분단 이후 북한 문학에서의 창작 방법으로 ‘고상한 사실주의’를 이어받으면서 세계관으로서의 ‘고상한 애국주의’를 강조하던 시기이다.<sup>5)</sup> 전쟁기 문학은 적과 동지를 양분화하는 시공간이라는 점에서 북한 문학의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을 전경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작가는 경직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텍스트의 ‘서사적 리얼리티’를 드러내는 작품을 창작했다.<sup>6)</sup> <표1>에 정리된 세 편의 소설은 바로 그 대표 작품이다. 「불타는 섬」은 월미도 방어전에서 해안포 분대장과 여자 통신수가 생사를 함께하는 순간에 ‘애정’이 깊어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사과나무」는 야전병원에서 부상병과 간호병은 ‘오해-갈등-화해’를 겪으면서 사적 감정이 싹튼 과정을 형상화하며, 「고압선」은 제대군인이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애인과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영웅의 후일담을 서사화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비상 체제에서 영웅의 사적 감정과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애정담은 자칫하면 숭고한 영웅주의를 훼손하고 선전 선동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새조선』의 편집진이 왜 이런 위험성을 내포한 영웅 애정담을 선정했을까? 전쟁터에서 피어난 사랑의 이야기들은 『새조선』의 번역을 통해 중국 독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재현되었을까?

기존 연구에서 북한 영웅서사에 나타난 애국심이나 충성심 같은 거대한 감정과 이성 간의 사적 감정을 모두 ‘감정(emotion)’으로 묶어서 다룬 경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영웅의 내면에 중층적으로 흐르는 미세한 결들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영웅의 내면세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동 이론’을 도입하기로 한다.

5) 오태호, 「해방기(1945~1950) 북한 문학의 ‘고상한 리얼리즘’ 논의의 전개 과정 고찰 - 『문화대전』, 『조선문학』, 『문학예술』 등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6, 우리어문학회, 2013, 319-358쪽.

6) 오태호, 「해방기(1945~1948) 북한 문예지에 게재된 대표 단편소설 연구 - 인물 형상화의 경직성과 유연성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0,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271~305쪽. 오태호는 “1950년대 한국전쟁기 북한소설은 남한의 종군 문학과 함께 입체적으로 조망되어야 할 텍스트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남과 북’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동시대에 생산된 원천텍스트와 번역텍스트를 상호텍스트로 삼아 1950년대 북한 문학의 ‘민낯’을 제증명하고 ‘사회주의 문학권’이라는 보다 거대한 틀에서 북한 문학을 재평가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정동(affect)’ 개념은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감정(emotion)과 구별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 번째로 마주침을 통해 나타나는 정동은 관계를 전제로 하며, 고정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힘과 강도의 변이와 이행을 보여준다.<sup>7)</sup> 이런 정동에서 주목할 점은 ‘정동하고 정동되는 힘’으로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지각하는 잠재력<sup>8)</sup>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역동성, 잠재력과 직결된 ‘정동’은 전쟁통에 영웅의 내면세계를 해부하는 데 유용한 용어이다. 한편으로는 사랑을 정동으로 간주하고 원작에 나타난 사랑의 시간적 변이 양상, 어떻게 싹트고 자라며 꽃이 피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해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번역텍스트에 나타난 정동과 관념의 치환, 정동과 연동된 신체적 반응과 변용을 통해 정동으로서의 사랑이 이데올로기의 규율에 따라 규격화된 과정을 조명할 수 있다.<sup>9)</sup>

또한 정동은 행위를 둘러싼 능력이며, 순간적이거나 지속적인 시간성, 그리고 그 시간성이 만들어내는 관계들과 연결된다.<sup>10)</sup> 즐거움, 기쁨, 흥분과 같은 긍정적인 정동은 행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분노, 고통,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정동은 행동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긍정적인 정동을 최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정동을 최소화시키려고 한다.<sup>11)</sup> 그러나 전쟁터에서는 정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역전(逆轉)된다. 적아(敵我)가 목숨을 걸고 대결하는 전쟁터는 정동(情動)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공간이다. 죽음

7) 나이절 스리프트 외 지음, 『정동이론: 몸과 문화·윤리·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최성희 외 역, 갈무리, 2015, 14~20쪽.

8)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18, 6쪽.

9) 아직까지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영웅서사를 정동적 차원에서 검토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연구는 식민지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에 등장하는 ‘정동’ 혹은 ‘정념’을 정치적이고 시대적인 맥락을 읽어내고 있다. 배상미,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소설에 재현된 뼈라를 둘러싼 정동과 출판문화」, 『우리어문연구』 No. 65, 우리어문학회, 2019; 이경림, 「사랑의 사회주의적 등정의 불가능성 - 강경애의 『인간문제』론」, 『한국현대문학연구』 Vol. 55, 한국현대문학학회, 2018, 8, 69-107쪽; 최병구, 「신체와 정동: 1930년대 프로문학의 문화정치적 역학」, 『한민족어문학』 No. 77, 한민족어문학회, 2017; 황지영, 「일제 파시즘기의 과학자 연에서사와 정동 관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 8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9.

10) 나이절 스리프트 외 지음, 앞의 책, 14~55쪽. 황지영, 「일제 파시즘기의 과학자 연에서사와 정동 관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2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9, 187쪽 재인용.

11) 김지영, 「오늘날의 정동 이론」, 『오늘의 문예비평』 제100호, 2016, 364쪽.

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 적에 대한 분노와 증오, 조국과 전우에 대한 사랑, 승리를 거둔 환희와 희망, 실패가 초래한 패배감과 수치심 등이 포화 속에서 순환하고 축적되면서 정동이 충만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승리를 거두기 위해 적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전투 의지를 유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비통 역시 적개심으로 전환되어 전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전시체제에서 생산된 전쟁문학은 독자의 긍정적인 정동을 최대화하고, 비통과 적개심 등 부정적인 정동도 함께 최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듯 정동과 행동능력의 역동적인 관계는 『새조선』 번역주체의 번역 동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동 개념에 기반을 두고 본 연구는 북한 영웅서사에 나타난 애정담에 주목하여, 정동으로서의 ‘사랑’이 어떻게 서사화되었는지, 그리고 대외홍보지 『새조선』의 번역에서 사랑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황건의 「불타는 섬」, 김영석의 「사과나무」와 이상현의 「고압선」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원천텍스트와 번역텍스트를 상호텍스트로 간주하고, 대외홍보를 위한 번역 과정에서 작용한 미학과 이데올로기 간의 역학 관계를 조명하고 북한 영웅서사에 내재된 사랑의 정치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불타는 섬」:

### 중대장과 통신수의 애정담, ‘전우애’로 치환되는 사랑

「불타는 섬」은 미군의 인천 상륙에 맞서 월미도를 방어하던 리대훈 해안포 중대원들의 영웅적 투쟁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소설은 여자통신수 김명희<sup>12)</sup>의 눈을 통해 월미도를 방어하던 리대훈 해안포 중대원들의

12) 「불타는 섬」이 1959년 황건의 단편소설집 『목축기』에서 수록되었을 때 여자 통신수 ‘김명희’는 ‘안정희’로 개명되었다. 이후 판본은 모두 ‘안정희’로 개명했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새조선』의 중국

영웅적 투쟁을 서사화한다. 「불타는 섬」은 1952년 1월 20-21일에 『로동신문』에 연재되고 동년 10월 『새조선』에서 「燃燒著的孤島」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중국 독자와 만나게 되었다.<sup>13)</sup> 동시대 북한 평론계에서 「불타는 섬」은 월미도 전투를 바탕으로 한 ‘대중적 영웅주의’를 형상화한 단편소설로 평가받았다.<sup>14)</sup> 이후 50년대 중반, 70년대에 여러 번의 개작이 이루어지면서 2012년 『현대조선문학선집(60)』 단편소설집 『불타는 섬』에 재수록되었다. 북한의 다변한 정치 풍랑 속에서 「불타는 섬」은 지속적으로 고평가되며 “조국 해방전쟁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sup>15)</sup>이자 “간결하고도 명료한 문체의 구사 등 우수한 예술적 수법을 보여주”는 불변한 ‘정전’으로 추앙받는다.

황건은 「불타는 섬」이 “젊은이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숭고한 혁명정신, 고귀한 사랑”을 다룬 작품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sup>16)</sup> 황건이 언급한 ‘고귀한 사랑’이란 남녀주인공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조국, 수령에 대한 사랑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이성에 대한 사랑과 국가, 수령에 대한 사랑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감정’과 ‘정동’의 차이에 관한 논의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정동이론가 마수미에 따르면 감정은 정동이 사회적, 언어적으로 규정된 격자 속으로 끼워 넣어진 것이고 정동은 그런 사회적, 언어적 격자 속에서 규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소유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감정과 달리, 정동은 부단히 흐르는 것으로서 인지에 포착되기 전(前)단계에 있다.<sup>17)</sup> 이런 점에서 보면 이성에 대한 사랑은 ‘정동’ 영역에

어 번역본은 초판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김명희’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 13) 황건 외 지음, 『燃燒的月尾島』, 柳樹人 역, 上海: 新文藝出版社, 1953, 27쪽. 재중 조선인 번역가 류수인은 황건의 「불타는 섬」과 「그가 돌아간 길」, 한봉식의 「어머니」, 김만전의 「사냥꾼」, 강형구의 「입진강」 등 5편의 소설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신문예출판사에서 『燃燒的月尾島』라는 소설집을 펴냈다. 류수인의 역자 후기에 따르면 중국어판 「燃燒的月尾島」는 1952년 1월 20일~21일 『로동신문』에 연재된 「불타는 섬」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한 것이다.
- 14) 한효, 「조선문학에 있어서 사회주의레알리즘의 발생조건과 그 발전에 있어서의 제특징」, 『문학예술』 5-6, 1952.6, 96쪽. 남원진, 「창조품과 기성품 - 황건의 「불타는 섬」의 창작과 개작에 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48집, 우리어문학회, 2014, 249쪽 재인용.
- 15) 최광일, 「단편소설집 『불타는 섬』에 대하여」, 『불타는 섬』, 유항림(의),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2, 4쪽.
- 16) 황건, 「영웅들의 고매한 정신세계를 그리고저 - 단편소설 「불타는 섬」을 쓰던 기억」, 『청년문학』 130, 1967.2, 5-6쪽.
- 17) Brian Massumi, “The Autonomy of Affect,” *Parables for the Virtual*, p. 28. 최성희, 「정동(affect),



속하고 국가와 수령에 대한 사랑은 ‘감정’ 영역에 속한다. 황건은 뛰어난 문학적인 구상을 통해 두 가지 사랑을 완벽하게 연결시켜서 ‘수령의 전사’이자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영웅 이미지를 형상화한다.<sup>18)</sup> 황건의 「불타는 섬」은 개인에 대한 사랑과 조국, 수령에 대한 사랑, 즉 ‘정동’과 ‘감정’을 완벽하게 접목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불타는 섬」이 북한문학사에서 불변의 정전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본다.

흥미롭게도 남녀주인공 간의 뜨거운 사랑은 『새조선』의 번역주체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대외홍보의 차원에서 영웅서사를 압도할 만한 애정담은 자칫하면 ‘영웅주의’와 충돌되는 불온한 요소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동’으로서의 애정과 ‘감정’으로서의 조국애의 균열을 봉합하기 위해 『새조선』의 번역주체는 많은 힘을 기울였다. 우선, 여주인공 명희의 경우를 살펴보자.

월미도에 도착한 명희는 리대훈 해안포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리대훈의 “흙먼지에 얼룩이 진 얼굴, 너털이 난 셔츠와 바지, 그 사이로 비죽비죽 내어민 피 흘리는 살”을 보면서 명희는 “그에게 벌써부터 마음이 사로잡혀버렸다.” 이처럼 대훈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명희의 마음속에서 영웅에 대한 존경과 흥미가 싹트기 시작한다. 하지만 『새조선』에서는 남녀주인공의 첫 만남에 일어난 일련의 정동의 순간들을 모두 삭제하고 뒤에 깔려 있는 사적 감정의 움직임도 은폐했다.

전황이 위급해지자 명령부에서는 “무전수들은 전부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명희는 고민 끝에 중대 동료들과 함께 월미도를 수호하기로 결정했다. 대훈과의 만남이 늘어날수록 명희의 정동도 점점 강해졌다. 명희는 대훈의 용맹하고 헌신적인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

스케치, 『오늘의 문예비평』 128호, 2023, 235-236쪽 재인용.

18) 1994년에 북한 사회과학출판사에서 간행된 『조선문학사』에서 「불타는 섬」이 거둔 문학적인 성과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이 소설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원수와의 판가리싸움에 나선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가장 첨예한 극적상황에서 일반화함으로써 혁명적 수령관문체에 가장 의의있는 해답을 준 것이다. (중략) 다음으로 작품이 거둔 중요한 성과는 월미도의 영웅들을 참다운 인간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김선려·리근설·정명옥, 『조선문학사 11: 해방후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141-142쪽.

(1-1) 거북스런 가운데 둘은 다시금 한동안 묵묵히 앉아만 있었다. 명희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옥작 저러왔다. 명희는 이제는 서로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왔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 그러며 명희는 지금 이 동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명희는 자신에 대한 생각보다도 중대장에 대한 생각이 가슴에 가득했다.<sup>19)</sup>(밑줄-인용자)

(1-2) 『새조선』: 삭제

(2-1) 명희는 자기도 모를 힘에 끌려 대훈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어쩐지 명희는 이 시간의 대훈의 얼굴 표정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 희미는 하나 대훈은 여전한 투지만만한 긴장된 얼굴이어서 명희는 다시금 안도되는 마음이었다.

대훈이에게서 도로 고개를 돌린 명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생각 못했으면서 어쩐지 바로 이 시각에 기어코 나누어야 할 것 같은 이제껏 못한 서로의 마음속 그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간절한 충동을 어찌는 수 없었다.<sup>20)</sup>

(2-2) 明姬不由自主地掉過頭來看看連長。在昏暗的戰壕裏，她依稀地可以看出連長臉上仍然充溢著堅定而沉著的神氣。<sup>21)</sup>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명희는 자기 자신보다도 대훈에 관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전선에 남기로 결심한 명희에게는 후회하는 마음은 없지만, 불안감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은 굳건한 의지를 가진 대훈을 보며 잠깐이나마 안정되지만, 명희의 정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대훈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

19) 황건, 「불타는 섬」, 『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선집: 1900~2000』, 조남현 편, 문학과지성사, 2007, 296쪽.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인용문에서 밑줄로 표시한다. 하동.

20) 황건, 위의 책, 296-297쪽.

21) 黃健, 「燃燒著的孤島」, 『新朝鮮』, 1952.10, 60쪽. 인용문을 한국어로 재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명희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중대장을 보았다. 어두운 참호 속에서 그녀는 분대장의 얼굴에 여전히 굳건하고 침착한 기운이 어려 있는 것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은 ‘간절한 충동’을 느꼈다. 죽음에 임박하여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들어줄 대화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선에 남아서 죽음을 선택한 이유를 중대장에게 토로하고 싶어했다. 이처럼 전쟁터의 혼란 속에서 두 인물 사이에 깊은 정서적 유대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새조선』의 번역주체는 명희의 정동이 일어나고 이행된 과정을 그린 내면묘사를 모두 삭제했다. 이로써 명희는 일말의 두려움과 흔들림도 없이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영웅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렇다면 대폭적인 삭제로 인한 서사적 공백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2-2)에서 볼 수 있듯이 『새조선』에서 서사의 초점이 명희부터 대훈으로 옮기면서 명희의 복잡한 정동들이 ‘굳건하고 침착한 기운’이 넘친 전투 영웅의 얼굴로 치환된다. 대외홍보의 차원에서 내면의 흔들림 없는 영웅이야말로 북한 인민군의 ‘숭고한 애국심’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2)</sup>

복잡한 정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명희는 대훈에게 자신이 가까이 죽음을 선택한 이유를 밝힌다. “저는 두렵거나 슬픈 생각이 없이…… 어떻게 말루 표현할 수는 없어두 기쁘구 행복한 마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고백할 시간이 필요하다. 죽음을 선택한 이유를 토로하는 과정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명희의 고백은 대훈의 내면에 큰 파동을 일으켰다.

(3-1) 대훈은 입을 열지 못했다. 대훈은 명희의 일로 벌써부터 마음이 괴로웠다. 그의 마음이 무조건 고맙고 귀중하게 생각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되고 그것은 또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대훈은 얼마 후에야 말이 목에 걸리듯 거북스레 입을 열었다. “지금이야 나는 동무의 일루 마음이 괴로워지오. 무어라구 해야 할지 동무에게 나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이오. …어쩐지 나는 동무를 10년두 전에 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오. 같이 있을 시간은 한정이 목전에 있지만

22) 1978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출판된 『조선문학사』에서 「불타는 섬」이 “인민군용사들의 투쟁과 그들이 발휘한 숭고한 애국심, 대중적 영웅주의를 형상화하는데 바쳐진 대표적인 소설작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1945-1958)』,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94, 185쪽.

목숨을 바쳐 싸우려는 여기서 동무에 대한 생각까지 겹치게 된 것은 너무나 기이하게 생각되오. 물론 이것은 안타까우면서도 나에게는 기쁘고도 찬란한 일이오…그러나 나는 그만큼 또 동무가 괴롭게 생각되오.”

(중략)대훈은 더 말은 없이 말 대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명희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중략)명희는 그냥 높기만 한 이름 못할 감정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sup>23)</sup>

(3-2) 連長說不出話來。因爲他看到他面前的這個少女雖然在自己的生命已臨最後一刻，但也沒有半点恐怖的神色，竟這麼泰然自若，所以他實任找不出一個適當的話來表達自己的心情。他只好反覆着三個字：“好同志，好同志！”<sup>24)</sup>

(4-1) 날은 더욱 밝아오고 함포는 더 세차게 주위를 울렸다. 들은 싸움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처럼 또 모든 이야기를 이 시각에 죄 털어놓아야 하는 사람들처럼 어렸을 적 자라던 이야기며 군대에서 공장에서 자나던 이야기를 시름없이 하여갔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정은 더 깊이 얽혀가는 듯했다.<sup>25)</sup>

(4-2) 連長雖然跟她並沒有長久同過事，可是他很愛她，好像熱愛連上的每個正直的戰士一樣；他非常歡喜這個姑娘，不願意叫她犧牲。<sup>26)</sup>

23) 황건, 앞의 책, 298쪽.

24) 黃健, 앞의 글, 61쪽.

중대장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소녀가 최후의 순간에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이토록 태연자약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낼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그저 “좋은 동지, 좋은 동지”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25) 황건, 앞의 책, 299쪽.

26) 黃健, 앞의 글, 61쪽.

중대장은 그녀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녀를 매우 사랑했다. 마치 그가 모든 정직한 전사들을 사랑하듯이 말이다. 그는 이 아씨를 매우 좋아했고, 그녀가 희생되길 원하지 않았다.

명희의 솔직한 고백은 대훈의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대훈의 내면에 일어난 감정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고통 → 감사 → 오랜 친구 같은 친밀감 → 이상함 → 안타까움 → 기쁨 → 괴로움. 이처럼 상반된 정동들이 뒤엎혀 나타난 것은 군인으로서의 소명감과 남성으로서의 본능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정동’으로서의 사랑이 공적인 감정을 압도하여 대훈은 명희의 “두 손을 꼭 잡”게 된다. 이처럼 작가 황건은 섬세한 필치로 남녀주인공 사이에 사랑이 짝트고 자라며 꽃이 피어난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러나 대훈이 괴로우면서도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안타깝다는 마음을 여실히 토로하는 발화는 『새조신』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만한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라고 한 마디로 간추렸다. 이런 다시 쓰기를 통해 『새조신』의 번역주체가 직면한 딜레마를 엿볼 수 있다. 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훈의 대화는 대의와 사심 사이에 흔들리는 내적 동요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러나 대의홍보의 차원에서 이러한 서사적 리얼리티는 영웅주의를 형상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주체는 대훈의 고백을 적절하게 번역할 만한 말을 찾지 못한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실어증을 대훈에게 전가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만한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고 “좋은 동지”라는 칭찬만 반복하면서 대화를 끝내버렸다. 이런 호칭을 통해 대훈과 명희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즉 대훈의 눈에 비치는 명희는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전투를 함께하는 ‘동지’일 뿐이다.

원작에서 명희와 대훈의 정겨운 대화는 모두 ‘아직 채 가지지 않은 별빛’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어둠은 남녀주인공에게 내면의 감정을 토로하는 사적인 공간을 마련해준다. 어두운 참호에서 두 사람은 기쁨, 고통, 감사, 행복, 안타까움 등 다양한 정서를 솔직하게 토로했다.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간절한 충동’이 ‘이름 못할 감정’을 거쳐 ‘깊이 엮혀가는 애정’으로 이행되었다. 여기서 “이름 못할 감정”은 생사를 도외시하는 중대장에 대한 숭배, 어깨를 나란히 한 전우에 대한 존경, 손잡고 위로를 전해 주는 대훈에 대한 감사 등으로 구성된 복합체이다. 이 모든 정동의 파편들이

모여서 애정으로 맺어졌다. 이런 애정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애정이 깊이 얽혀가’는 임계점에서 해가 밝아졌다. 햇빛이 비치는 참호는 다시 공적인 공간으로 바뀌고, 두 사람의 관계도 다시 분대장과 통신수로 환원되었다. 이때 ‘수령의 딸’인 명희가 김일성을 환기하면서 남녀주인공의 대화는 다시 공적인 영역으로 진입된다. 이처럼 원작에서 어둠과 밝음의 전환에 따라 ‘정동’로서의 사랑과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반면 『새조선』의 번역본에서 참호는 공적 공간으로만 설정된다. 어둠 속에서도 분대장과 통신수라는 위계질서가 두 사람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3-2)에서 명희의 고백을 듣고 대훈은 말문이 막혀 “참 좋은 동지”라는 말만 반복한다. 또한 (4-2)에서 대훈의 사랑을 “정직한 전사들을 사랑”하는 ‘전우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우로서의 관계를 강조한다. 여기서 『새조선』의 번역주체는 ‘전우애’라는 명분을 빌려 대훈과 명희의 정동과 행동을 합리화하고 중국 독자가 남녀주인공의 감정을 이성 간의 사랑으로 오독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불타는 섬」에서 남녀주인공의 사랑은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희생을 각오하는 동력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새조선』의 번역주체는 남녀주인공이 정동되는 순간들을 철저히 여과시켜서 그들의 감정을 이성 간의 사랑과 확실히 구별된 ‘전우애’로 명명(命名)한다. 대외홍보의 측면에서 보면 중대장과 통신수 간의 ‘전우애’야말로 영웅주의의 순결성과 희생의 숭고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사과나무」:

#### 부상병과 간호병의 애정담, ‘보상’으로 변조되는 사랑

김영석의 「사과나무」는 부상병 이찬식과 간호병 김현숙이 ‘오해-갈등-화해’를 통해 애정을 펼친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불길 속에서도 꽃이 피고 잎이 나고 또 열매가 맺히는” 사과나무는 찬식과 현숙 사이의 사랑을 상징적으

로 표현하고 있다. 구체적인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부상한 중기사수 이찬식은 야전병원에 이송하여 현숙의 간호를 받는다. 완치되지 않은 찬식은 퇴원을 요구하지만 군의관으로부터 거절당한다. 어느 날 환자 이송 틈을 타서 병원에서 탈출하여 소속 부대로 돌아간다. 며칠 후 재입원한 찬식은 현숙의 수혈로 다시 살아나지만, 야전병원이 미군의 폭격을 받아 그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간다. 전투가 끝난 후 현숙은 참호에서 의식을 잃은 찬식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간다. 3개월 후 퇴원을 앞두고 두 사람은 이별 인사를 나누며 소설은 마무리된다.

「사과나무」는 1953년 1월 『문학예술』에 게재되고 2개월 후 『새조선』에는 「蘋果樹」라는 중국어 번역본이 바로 실렸다. 기존 연구에서 밝혔듯이 전투 영웅의 로맨스에서 부상병과 간호병의 애정담은 「조국애」라는 공적 지향과 연애 감정이라는 사적 감각의 이상적 일체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티프이다.<sup>27)</sup> 그렇다면 「사과나무」의 번역 과정에서 남녀주인공의 연애 감정과 조국애는 어떻게 재현되었을까? 남녀주인공의 첫 만남과 재회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사과나무」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그의 고향 사정과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유전사에게서 들은 현숙은 그의 전투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나 그가 어떻게 싸웠던 간에 오밤중 이긴 인제긴 무시로 소리를 질러 다른 환자들의 단잠을 깨놓는 데는 아찔이었다. 간호원들에게는 사실 누구나 병원에서 일르는 말을 잘 듣는, 다시 말하면 너무 왕청된 쾌를 끼치지 않는 환자가 더 달가운 것이다. “그 부분대장 아주 힘들어!” 하면서 간호원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다.<sup>28)</sup>  
(밑줄-필자)

(1-2) 尹戰士의 敘述中, 賢淑知道: 燦植怎樣英勇地和敵人作過鬪爭, 因而她更加熱情地照顧他, 雖然感覺到他的性格有點粗暴, 但她一點也不

27) 오태호, 「북한 단편소설에 나타난 연애 담론 연구 - 2000년대 초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58호, 국제어문학회, 2013, 569쪽.

28) 김영석, 「사과나무」, 『문학예술』, 1953. 1, 67쪽.

表示厭煩，更加有耐性地進行着作爲一個看護員來爲照顧傷員所能做到的一切。<sup>29)</sup>

인용문(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찬식과 현숙의 첫 만남은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 부상으로 입원 중인 찬식은 무례한 태도로 현숙을 대한다. 또한, 미군과의 치열한 전투로 인한 후유증으로 찬식은 때를 가리지 않고 고함을 질러 다른 부상병의 휴식을 방해한다. 간호병들은 찬식의 후유증에 대해 동정을 표하면서도 불만을 품고 있다. 원작에서는 ‘아찔하다’, ‘혀를 내두르다’ 등 신체적 반응을 통해 간호병들의 부정적인 정동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인용문(1-2)에 나타나듯이 『새조선』에서는 간호병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모두 삭제하고 현숙을 초점 인물로 두고 섬세한 심리묘사를 추가했다. 유전사의 설명을 듣고 현숙은 “찬식의 성격이 좀 거칠다는 것을 느꼈지만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고, 간호사가 부상자를 돌볼 수 있는 모든 힘을 바쳐 더 참을성 있게” 찬식을 간호하기로 한다. 이러한 추가 번역을 통해 현숙의 사명감을 환기해서 모든 힘을 바쳐 찬식을 정성껏 돌보는 동기를 불어넣었다. 다시 정리하면 남녀주인공의 첫 만남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새조선』의 번역 주체는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해서 원작에 나타난 부정적인 정동들을 역전시킨다. 우선, 주변 간호병들의 불만을 철저하게 삭제함으로써 인민 내부의 갈등을 은폐하고 찬식의 완벽한 영웅 이미지를 미화(美化)한다.<sup>30)</sup> 또한 현숙에게 ‘귀찮아하지 않다’, ‘참을성 있다’ 등 긍정적인 정동을 부여함으로써 남녀주인공의 감정 발전에 복선을 깔아 둔다.

남녀주인공의 갈등은 찬식의 무단 탈출로 인해 한층 심화되었다. 어느 날

29) 『蘋果樹』, 『新朝鮮』, 1953.3, 52쪽.

윤 전사의 이야기를 듣고 현숙은 찬식이 얼마나 용감하게 적과 싸웠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더욱 열정적으로 보살폈다. 현숙은 찬식의 성격이 좀 거칠다는 것을 느꼈지만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고, 간호사가 부상자를 돌볼 수 있는 모든 힘을 바쳐 더 참을성 있게 찬식을 간호하고 있었다. (『새조선』에서 ‘유전사’를 ‘윤전사’로 오역했다. - 필자 주)

30) 『새조선』번역본에서 ‘인민 내부의 갈등’을 은폐시키려는 번역 동기는 다른 군데에서도 종종 보인다. 예컨대, 원작에서 군의관은 “무단히 도망을 치지 않나? 군의의 처치를 거부하지 않나? 대체 어떻게 된 셈판이요 글세—그런 동무는 보나마나 자기 부대장의 말도 거역할 거야!”라고 엄하게 꾸짖어 찬식이 병원에서 도망친 행동을 규율 위반과 동일시한다. 군의관의 말은 모두 삭제되었다.



미군이 기습 폭격한 틈을 타서 찬식은 병원에서 탈출하여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현숙은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병 명단에서 찬식의 이름을 발견했다. 찬식과 재회했을 때, 현숙은 그에게 “동무는 규를에는 아주 옳지 않았습디다요!”라며 꾸짖고 싶어 했다. 그러나 심하게 부상한 찬식을 보고 현숙은 주저 없이 수혈하기로 했다.

(2-1) 첫째 담가에 실려오는 부상병—꺼먼 눈썹과 우뚝한 콧날, 꼭 담은 입매, 그가 틀림없는 리찬식이였다. 그러나 미리 준비했던 그 설교의 말들이 다짜고짜로는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 환자 급한가봐요.” 접수와 동무가 이같이 군의에게 설명했다. 과연 노기를 품어 왕방울 같은 그의 눈이 혼수상태에 빠진 듯이 감겨져 있었다.

(중략)군의는 두 달 동안에 800그램이나 피를 뽑은 이 간호원의 얼굴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나 현숙은 재촉하듯이 걸어올린 팔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 전상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건 아니건 정성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위생 일꾼들의 신성한 의무인데다 주야로 그의 생사를 생각하던 현숙은 반드시 리찬식을 살려놓고 보리라 결심했다.<sup>31)</sup>

(2-2) 躺在第一個擔架上的傷員——黑黑的眉毛、高高的鼻樑、還有緊閉着的嘴唇，一點不差正是李燦植同志。但她事先準備說教的話這時却一句也說不出來了，尤其是在接收科的同志在放下擔架時說了一句：「這個同志很危重！」之後，她那該是含怒的臉色，反而顯得特別憂慮而焦躁。

(중략)軍醫向這個在兩月中輸過八百CC血的看護臉上凝視了許久，但賢淑却像是在催促似的把自己捲起的胳膊又向前伸了一下。正因爲她晝夜掛念了他的生死問題，所以她已決心一定要把他救活。<sup>32)</sup>

31) 김영석, 「사과나무」, 『문학예술』, 1953. 1, 70쪽.

32) 「蘋果樹」, 『新朝鮮』, 1953. 3, 52쪽.

(전략) “이 환자 급한가봐요.” 접수와 동무가 이같이 군의에게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분노해야 할 그녀의 얼굴은 오히려 걱정스럽고 초조해 보였다.

군의는 두 달 동안에 800그램이나 피를 뽑은 이 간호원의 얼굴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나 현숙은 재촉하듯이 걸어올린 팔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녀는 밤낮으로 찬식의 생사문제를 염려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살리고 싶어한다.

위의 인용문은 남녀주인공의 재회와 현숙의 수혈을 묘사하는 대목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번역본과 원작의 차이는 두 군데가 있다. 우선, 찬식에 대한 묘사이다. 원작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찬식은 “노기를 품어 왕방울 같은 눈이 혼수상태에 빠진 듯이 감겨져 있었다.” 여기서 찬식의 ‘노기’를 품은 눈에 대한 세부 묘사는 전투 영웅의 불타는 적개심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흥미롭게도 『새조선』에서는 ‘노기’를 품는 주체는 찬식으로부터 현숙으로 이전된다. 접수와 동지의 말을 듣고 “노기를 품어야 할 현숙의 얼굴에는 우려와 초조가 가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교묘한 치환을 통해 찬식의 허약한 상태는 은폐하는 동시에 현숙의 ‘우려’하고 ‘초조’한 심리는 부각시킨다. 이를 통해 무단탈출로 인한 두 사람의 갈등도 쉽사리 해결된다.

또한 원작에서 현숙의 심리묘사를 통해 찬식을 꼭 살려야 하는 원인을 밝혔다. 즉 “그 전상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건 아니건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위생 일꾼들의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찬식에게 수혈하기로 한다. 이러한 내면묘사에서 부정적인 정동과 긍정적인 정동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현숙은 무단 탈출한 찬식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 일꾼의 신성한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현숙은 찬식에게 수혈하기로 한다. 여기서 나타난 불만과 사명감의 충돌이 『새조선』에서는 모두 삭제되고 “밤낮으로 그의 생사 문제를 염려했기 때문에 반드시 찬식을 살리고 싶다”는 절실한 바람으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새조선』 번역본에서 현숙의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이미지를 한층 강화된다. 현숙의 헌신 덕분에 두 사람 간의 감정적 연대가 한층 강화된다.

정동과 행동 능력의 관계에서 『새조선』의 번역주체가 현숙의 내면을 대폭적으로 다시 쓰는 동기를 분석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정동을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affectio)으로 규정한 바 있다.<sup>33)</sup> 부상자에 대한 불만은 현숙의 간호 능력

33) 김지영, 「오늘날의 정동 이론」, 『오늘의 문예비평』 100호, 2016, 365쪽.

을 감소하는 부정적인 정동이며 초조, 우려는 간호 능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정동이다. 따라서 『새조선』에서 현숙에게 긍정적인 정동을 첨부함으로써 남성 영웅을 정성껏 돌보는 원동력을 불어넣는다. 이와 같은 다시 쓰기 방식은 소설 결말의 번역에도 적용한다. 3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찬식은 완치되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별의 순간을 앞두고 찬식과 현숙은 상대방에게 고백하고 싶었으나 그 표현 방식은 지극히 절제되어 나타난다.

(3-1) 찬식은 오늘 퇴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숙은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그에게로 달려갔다. 허나 막상 그를 대하자 말문이 막혔다. 그저 잠깐 미소를 띠우면서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자 찬식도 입가에 가벼운 웃음을 띠우더니 다시 덤덤히 거닐었다. 찬식은 이 순간 처음으로 자기의 뜻을 표하려는 듯했으나 입가를 가벼히 움직였을 뿐 그에게 아무말도 못하고 말았다. 꼭 전달해야 할 말이 있는 듯 싶던 현숙도 새삼스레 입밖에 내야 할 아무말도 찾아내지 못했다. 두 사람은 발 앞을 내려다보면서 접수과 뒤 오솔길을 지나 둥근 언덕을 넘어섰다. (중략)

얼마 후 현숙은 “부분대장 동무……” 무슨 말인지 하려다가 금세 목이 메이듯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인 현숙은 부끄러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생모 안으로 스며드는 화려한 햇빛이 그렇게 곱게 물들여준 것인지 두 볼이 뜨거울상 싶게 붉었다.

찬식은 별안간 현숙에게로 다가섰다. 그리고 빼앗다 싶이 현숙의 손을 당겨쥐더니 “현숙이!” 했다. 그러고는 그 이상 할 아무 말도 없다는 듯이 뚜벅 뚜벅 언덕을 병원쪽으로 치오르는 것이었다.

찬식이 언덕을 넘어가버릴 때까지 그냥 서있던 현숙은 미여지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자꾸 흐느끼면서 입 속으로 외쳤다.

“좋습니다. 가십쇼! 전초로 가십쇼! 가세요!”<sup>34)</sup>

(3-2)(전략)燦植突然走到賢淑面前來了，同時又拉過她的手緊緊握着手說：「賢淑！」他叫了一聲後，就再也說不出甚麼話，轉身就向到醫院去的山坡走了上去。直到燦植翻過了山坡之後一直是佇立着的賢淑，無論如何也沒有能夠使自己像被甚麼堵塞了的心安靜下來。她就地坐下來一個勁抽噎着，嘴裡還喃喃的說：「好吧！你應該去！到前方去吧！我一定等着你，直到你勝利歸來！去吧！」<sup>35)</sup>

퇴원을 앞두고 찬식은 ‘자기의 뜻’을 표하고 싶지만 “입가를 가벼히 움직였을 뿐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다.” 현숙도 “꼭 전달해야 할 말이 있”지만 “입밖에 내야 할 아무 말도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에는 입에서 나온 것은 단지 “부분대장 동무”와 “현숙”이라는 호칭일 뿐이다. 이런 서사적 처리 방식은 당시 전쟁터에서 사적 감정을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찬식이 언덕을 넘어 멀리 간 뒷모습을 보고 현숙은 “ 좋습니다. 가십시오! 전초로 가십시오! 가세요!”라고 외치면서 소설이 마무리된다. 남녀주인공은 끝까지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지 못한 채 이별하고 만다. 현숙의 사랑은 찬식을 전선으로 내보내는 행동에만 그친다. 이런 안타까운 결말을 통해 전시체제에서 생산된 애정담의 서사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쟁 지배담론 앞에서 개인의 사적 감정은 양보해야 하고 영웅의 사랑은 전쟁 승리 이후로 미뤄둬야 한다.

감정을 지극히 절제한 여성 이미지와 달리, 『새조선』에서 찬식의 뒷모습 보고 현숙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발화를 붙임으로써 일편단심으로 전쟁의 승리와 영웅의 귀향을 기다리는 여성 이미지를 제시한다. 그러나 찬식이 언덕을 넘어간 후에야 비록 입속에 외친 말이라서 실제로 찬식은 이런 고백을 들을 리가 없다. 『새조선』의 번역주체는 이런 발화를 의도적으로 첨가함으로써 중국 독자에게 전쟁 승리 이후 금의환향한

34) 김영석, 「사과나무」, 『문학예술』, 1953.1, 77쪽.

35) 「蘋果樹」, 『新朝鮮』, 1953.3, 55쪽. 밑줄 친 부분은 한국어로 재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그래! 빨리 가십시오. 전방으로 가세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가세요!”

영웅의 달콤한 후일담을 예고하고자 한다. 사적 욕망은 전무(全無)하고 적개심과 애국심을 고취한 찬식은 영웅주의를 체현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상한 몸으로 전선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이러한 영웅은 성격상 결함이 있더라도 현숙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새조선』에서 현숙의 적극적인 발화를 통해 전쟁이 승리할 때 찬식과 현숙의 재회를 기약하는 해피엔딩을 제시한다. 이렇듯 전쟁 승리의 기약으로서의 사랑은 헌신적으로 싸운 전쟁영웅에 대한 서사적 ‘보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후 부상한 전쟁영웅이 과연 참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영웅의 후일담을 다루는 『고압선』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 4. 「고압선」: 영예군인의 후일담, ‘치유’를 지향하는 사랑

이상현의 「고압선」은 전쟁 중에 얼굴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쳐서 제대하게 된 진수가 고향으로 돌아가 후방생활에 적응하는 영웅 후일담이다. 소설은 총 4장으로 구성되고 진수의 제대 생활에 수반된 내적 갈등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1장에서 영예군인으로 제대하고 귀향길에 오른 진수의 기대와 ‘불안’, 2장에서 작업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포부가 거절당한 ‘불만’과 ‘괴로움’, 3장에서 다시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생의 환희’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제3장부터 진수, 친구 응선과 애인 원희의 삼각관계로 구성된 애정담도 펼쳐진다. 양심을 품은 서동무에게서 응선과 원희의 소문을 듣고 진수는 우정과 사랑의 딜레마에 빠진다. 4장에서 진수는 폭풍우 속에서 응선, 원희의 도움을 받아 고압선을 연결한다. 이로써 진수는 “원희의 참된 사람, 응선의 숭고한 우정을 ... 남김 없이 받아 들여야 한다”고 깨닫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소설이 마무리된다.

「고압선」은 1953년 7월에 창작되어 8월에 『문학예술』에 게재되었으며 한 달 후 「高壓線」이란 중국어 번역본이 『새조선』에 실렸다. 『새조선』 번역주

체의 신속한 반응을 통해 제대군인의 후일담이 당시 북한 대외홍보의 중요한 소재로 포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새조선』 문예란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문학예술』에서 무려 23쪽이나 차지하던 「고압선」은 6쪽으로 대폭 줄여서 축소 번역되었다.<sup>36)</sup> 그렇다면 선택과 배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새조선』의 번역주체는 어떤 내용을 선택하고 어떤 내용을 삭제했을까?

우선, 남성영웅 진수에게 더 많은 지면을 확보하기 위해 여주인공 원희에 관한 내용은 대폭 삭제했다. 원작에서 진수의 내적 갈등을 일으킨 핵심적인 인물로서 원희는 빈번하게 등장한다. 단, 원희는 초점 인물로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수와 응선의 회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려진 장면이 많다. 우선, 진수의 회상을 통해 ‘찬란’한 소녀 원희와 명랑한 청년 진수 사이에 사랑이 싹튼 정동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정동으로서의 사랑은 타자들과 연결된 연결망 속에서 느끼고, 반응하고, 행하는 ‘과정’을 강조한다.<sup>37)</sup> 원작에서 진수와 원희는 함께 일하면서 ‘서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잦아지며’ 드디어 ‘애정이 맺어진’ 정동의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조선』에서 이에 관한 회상을 모두 삭제했다. 또한 응선의 회상을 통해 애인이 떠난 후 원희가 ‘우울’함을 극복하고 건전한 여전공으로 성장한 과정을 재현한다. 응선의 회상도 『새조선』에서는 대폭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죽은게 점점이 돋은 얼굴에 이슬마냥 맺힌 땀을 훔치며 수긋이 일하”는 처녀가 억센 손, ‘동색 얼굴에 오이루 냄새가 풍기’는 여성 노동자로 성장하는 과정도 함께 사라진다. 『새조선』의 대폭 삭제를 거쳐 풍부한 내면세계를 지닌 입체적인 인물이었던 원희는 진수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도구로 전략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자주인공 진수는 어떤 모습으로 번역되었을까?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북한 영웅서사의 계보에서 진수라는 인물의 독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시대 창작된 전쟁서사에서 막강한 의지와 이성으로 무장된 영

36) 종합지로서 『새조선』에는 비문학적인 글들이 절대다수의 지면을 차지하고 문예 작품을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은 10면도 안 된다. 더 세분화하면 시가는 1-2면, 소설은 적으면 2면, 많아야 8면을 차지한다. 등천, 앞의 글, 179-180쪽.

37) 최성희, 「정동(affect), 스케치」, 『오늘의 문예비평』 128호, 2023, 223쪽.

웅이 대부분이다. 이와 달리 전쟁통에 부상한 진수는 지극히 감성적이고 정동적 주체로 형상화한다. 소설은 진수에 대한 내면묘사부터 시작한다. “진수는 그림던 공장 거리를 지척에 두고서부터 차차 마음 속이 불안스러워졌다.” 영예군인으로서 진수는 ‘인민영웅’이라는 영예를 갖고 온 동시에 부상한 몸도 함께 가져온다. 참전 전에 명랑하고 씩씩했던 진수가 제대 이후 지극히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이 된다. 신체적 불구로 인한 열등감과 자기혐오, 옛 친구와 동료의 격차를 실감한 고독감, 무엇보다도 옛 애인의 서먹한 태도로 인한 좌절감과 패배감… 「고압선」에서 영예군인 진수의 내면세계를 너무나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이상현은 진수의 입을 통해 전쟁 영웅의 ‘신화’에 대한 반성을 노출한다. 원희는 진수 얼굴의 상처가 “조국에 대하여 얼마나 충성을 다하였는가 하는 표적”이라고 위로한다. 이에 대해 진수는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여간 후련해진 것이 아니요…… 지금 자꾸 그렇게 말하면 더 괴로워질 따름이요.”라고 내면의 상실감을 솔직하게 토로한다. 진수의 발화는 상처를 ‘훈장’으로 미화하는 논리, ‘헌신만큼 보상받기’라는 영웅 ‘신화’의 허위성을 설파한다. 담론적인 측면에서 상처는 ‘조국에 대한 충성의 표적’으로 미화할 수 있지만, 실제 먹고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상처는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웅을 괴롭히는 진통으로 부작용이 큰 바이다. 이런 값진 반성은 『새조선』의 번역을 통해 뜻깊은 기록으로 남겨진다.

논의의 시각을 다시 역사 현장으로 돌려 보자. 북한 전시문학의 창작 방향에 따르면 영예군인을 다룬 텍스트라면 “전선과 후방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한 인민과 인민군대의 불굴의 모습을 형상화”<sup>38)</sup>해야 한다. 이상현의 「고압선」은 이런 가이드라인과 상당한 거리를 보인다. 동시대 평론가는 진수를 “자의식 소심한 고민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고 “구시대적 소부르쥬아 인테리의 유물”<sup>39)</sup>이며 “행동과 심리의 부조화, 정황과

38) 오태호, 앞의 글, 350쪽 재인용.

39) 김명수, 「우리 문학에 있어서의 전형과 갈등 문제 -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투쟁과 관련하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1, 124~145쪽.

성격의 부조화”<sup>40</sup>)를 초래하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새조선』의 번역주체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진수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는 대목을 조심스럽게 처리했다.

「고압선」에서 진수의 성장 과정을 통해 제대군인이 삶의 보람을 되찾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첫째, 하루빨리 노동현장으로 복귀해 후방 지원사업에서 일하는 노동 일원으로 거듭난 길이다. 둘째, 옛 애인,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세속적인 행복을 획득한 인간으로 거듭난 길이다. 직 무역량의 회복에 비해 인간관계의 개선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쟁 발발 이전에 진수와 원희, 응선은 배전부(配電部)에서 일한 동료였다. 진수가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응선은 작업반장으로 승진되고 천진난만한 원희는 당당한 여전공으로 성장했다. 신분의 변화로 인해 세 사람의 관계가 교묘하게 역전되고 이에 따라 진수의 심리적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격차는 고독감, 패배감, 상실감 등 부정적인 정동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정동들은 진수의 행동 능력을 감소시키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부정적인 정동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긍정적인 정동을 도입해야 하는데, 소설에서 의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삶의 환희’와 ‘기쁨’을 제시함으로써 진수가 건전한 노동자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진수의 전쟁 기억을 수차례 환기함으로써 미군에 대한 분노를 활성화한다. 적에 대한 분노는 현실에서 부딪힌 좌절감을 이겨내는 긍정적 정동으로 전용한다. 엄격한 지면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조선』의 번역주체는 ‘환희’, ‘기쁨’과 ‘분노’ 등 정동을 묘사하는 대목을 빠짐없이 번역했다.

긍정적인 정동의 충실한 번역에 비해, 진수의 부정적인 정동에 대해 복잡한 번역 양상을 드러낸다. 예컨대 일하는 보람을 느낀 진수는 “원희를 멀리하고 그에게 보람 있는 청춘을 소생시켜주”기로 작정한다. 그러나 응선과 원희의 소문을 듣고 진수는 또다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40) 안환광, 「소설 문학의 발전상과 전형화상의 몇가지 문제」,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128~150쪽.



(1-1) 진수는 서동무가 가는 쪽을 한참이나 서서 보다 다시 걸었다. 순간 진수는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기도 하였다. 차라리 그것이 다행한 길일지도 몰랐다. 웅당 그럴 수 있을 것이었다. 삼년이라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다. 그 동안 원희를 동무로서 일을 배워주었을 터이니 웅선이의 머리 속에 진수라는 동무의 기억이 차차 사라지고, 아니 원희의 머리 속에 진수라는 사람의 모습이 희박해지며 의례히 서로의 사이에는 우정이 아니라 애정이 맺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자기를 만나 속 시원히 털어놓고 이야기한들 어땠랴! 진수는 마음 속에 끼었던 어두운 구름장이 사라져 밝아오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며 동시에 다시 그 어떤 어둠이 끼쳐오는 것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웅선이는 정말 그럴수가 있을까? 원희의 태도가 왜 저렇게 석연하지 못할까? 부상당해 돌아온 자기를 동정해서 그런다면 너무나 쓸쓸한 일이었다. 웅선이와 자기 사이는 천리 같이 멀어지는 듯했다.

동지로서의 우정…… 이성으로서의 사랑…… 사랑을 동정이어서는 안 된다.

전선에서 아름다운 청춘과 생명을 바쳐 싸운 것은 자기 조국의 운명을 등에 지고, 사랑하는 자기 인민의 변명과 장래 발전을 위해 목숨을 내어 건 것이었다. 때문에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 없는 행복이었다. 그것이 동정일 수는 없었다.<sup>41)</sup>

(1-2) 鎮洙望着徐同志的背影站了好久後才又邁開了腳步。在這剎那，鎮洙的心很像是輕鬆了些。他想：說不定那是僥倖的事，而也應該是可能的事。

鎮洙感到了一種如同遮在心裡的一塊烏雲在消散着、而心胸漸漸豁亮起來的感覺，同時也感覺到另外又有一種黑暗的東西像在侵襲自己——應善真會那麼做嗎？元姬的態度為甚麼是那麼不明確呢？如果她是因為同情我這個負傷回來的人才那樣，那就是痛心的事了。他

41) 리상현, 「고압선」, 『문학예술』, 1953.8, 66-67쪽.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중국어 번역본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覺得應善和自己之間發生了千里之遠的距離。鎮洙停下腳步，深深的吸了一口氣。<sup>42)</sup>

서동무에게서 응선과 원희의 소문을 듣고 진수는 배신감보다 오히려 ‘후련함’을 느낀다.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수의 내면 독백에서 양립한 감정들이 위계화되어 있다. ‘동지로서의 우정’과 ‘이성으로서의 사랑’, ‘동정’과 ‘사랑’, ‘인민들의 사랑’과 ‘이성으로서의 사랑’은 그것이다. 진수는 ‘동지로서의 우정’이 ‘이성으로서의 사랑’으로 바꿀 가능성은 자인하지만 약자에 대한 ‘동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전쟁 기억을 환기하고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 없는 행복”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여기서 ‘인민의 사랑’과 ‘이성으로서의 사랑’이 타협 없는 양자택일의 도식 위에 놓는다. ‘이성 간의 사랑’은 두 사람만을 필요로 하나, ‘인민의 사랑’은 대상이 많을수록 커진 것이다.<sup>43)</sup> 양자가 서로 충돌할 때 진수는 이성의 사랑을 포기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즉 진수는 ‘인민의 사랑’의 절대적 우선권을 주장하고 심리적 위기를 극복해낸다. 이러한 취사 선택을 통해 ‘이성으로서의 사랑’이 인민 내부의 연대를 분열시키는 위험성을 읽어낼 수 있다. 따라서 『새조선』에서 밑줄로 표시된 부분, 즉 취사선택의 복잡한 과정을 대폭 삭제함으로써 ‘인민의 사랑’과 ‘이성으로서의 사랑’의 대립 관계를 은폐했다.

진수가 고민하고 흔들리는 모습은 전투 임무를 완수한 전쟁영웅이 후방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탐구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1차적 심리 위기를 겪고 나서 진수는 인민의 사랑을 받는 영웅, 즉 ‘국가주의적 개인’을 지향하는 길을 선택한다. 그러나 인민의 사랑을 선택한 진수는 내적 갈등이 고치지 않는다. 이상현이 지향하는 영웅 후일담은 인민의 사랑만을 획득하는 반쪽 영웅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설 후반부에서 삼각관계의 해체 과정을 통해

42) 「高壓線」, 『新朝鮮』, 1953.9, 53쪽.

43) 이경림, 「사랑의 사회주의적 등정의 불가능성 - 강경애의 『인간문제』론」, 『한국현대문학연구』 Vol. 55, 한국현대문학회, 2018.8, 84쪽.

인민의 사랑과 이성의 사랑을 동시에 획득하는 완벽한 영웅 후일담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원희의 고백, 응선의 해명, 그리고 서동무의 증언 등 3차례 소통을 거쳐서 주인공들의 오해가 풀리고 삼각관계도 해체된다. 『새조선』에서는 교묘한 다시 쓰기를 통해 삼각관계의 해체 과정을 가속화한다.

(2-1) 『나는 진수 동무의 얼굴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예요…… 진수 동무! 나는 동무가 읽다 놓은 오쓰뜨롭쓰끼의 소설 대목을 다시 읽었어요…… 나는 진수 동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사랑해요.』

(중략) 순간 원희의 몸이 진수에게로 쏠리자 자기도 모르게 진수는 그를 껴안았다. 둘은 웅덩진데로 굴러가 그대로 엎드렸다.

이윽고 비행기 소리도 사라지자 함포 사격도 멎었으나 사찌라이크 불만은 거만스레 비치고 있었다.

순간 진수는 무엇을 생각하였음인지 원희를 뿌리치듯 하며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원희는 그저 어둠 속을 바라보고 섰을 뿐 움직이지 않았다.<sup>44)</sup>

(2-2) 『我愛的並不是你的面孔……鎮洙同志！我把你讀着放下的那一段奧斯特洛夫斯基的小說又重看了一次呢！我愛的就是鎮洙同志所具有的那種精神。』

(중략) 刹那間，元姬吃驚的向鎮洙衝去了，而鎮洙也不自覺的抱住了她，接着俩人立刻滾到低洼的地方爬了下水。

不久，飛機聲消逝了，艦炮也停止了轟擊，祇有探照燈還在照射着。

他倆從地上站了起來，元姬打掉了覆在背上和頭上的灰土。

不知鎮洙懺悔了甚麼，黑暗中只是默默的注視着元姬燃燒起來的眼睛。<sup>45)</sup>

44) 리상현, 「고압선」, 『문학예술』, 1953.8, 66-67쪽.

45) 「高壓線」, 『新朝鮮』, 1953.9, 53쪽. 밑줄 친 부분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진수는 무엇을 참회했는지 어둠 속에서 원희의 불타는 눈만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3-1) “그것은 서로의 사업을 통해 이성인 것만큼 우정이 애정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터이고…… 이렇게 맺어진 사랑이라면 누가 욕할 사람은 없을게네…… 그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응선이 내가 못한 것을 응선 동무가 원회를 전공으로 길렀구, 나는 동무가 원회를 사랑한다면 이상 더 반가운 일이 없겠네……”

“만일 끝끝내 동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동무나 원회에 대한 우정이 삼시에 무너지고 마네…… 동무를 만나는 날, 나는 원회를 사이에 놓고 자랑하고 싶었던 이 심정을 왜 이렇게 호리게 하는가……”<sup>46)</sup>

(3-2) “因為我想到, 通過工作關係, 異性間的友情很可能變成愛情, 並且這是很自然的事情……這樣建立起來的愛情, 也不會有人罵你或是反對你的……所以……應善! 你把元姬養成了電工, 這是我沒能做到的, 所以我想如果你愛元姬, 那就沒有再比這更令人高興的事情了。但是, 現在所有這種疑慮已經全部消除了啊!”

說完兩人緊緊的握住了手, 並且在另一個瞬間, 他們互相擁抱起來了。<sup>47)</sup>

(4-1) 서동무는 진수의 등 뒤에서 신음 소리가 반이나 쉬인 목소리로 마치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나날이나 먹은 놈이 인제사 참말 산다는게 무엇인가 알았어…… 원회 동무…… 용서하오…… 응선이와 원회 동무가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요 며칠 간 확실히 알았소……”<sup>48)</sup>

(4-2) 『새조선』: 삭제

46) 리상현, 「고압선」, 『문학예술』, 1953.8, 69쪽.

47) 「高壓線」, 『新朝鮮』, 1953.9. 53쪽. 밑줄 친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전략) 하지만 이제 그런 의심은 모두 풀렸군요!

두 사람은 말을 마친 후 서로 꼭 손을 잡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안아주었다.

48) 리상현, 앞의 글, 1953.8, 72쪽.

『새조선』의 번역주체는 세 군데의 다시 쓰기를 통해 갈등 해소 과정을 가속화한다. 우선, (2-1)에 나타나듯이 애인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원희는 진수를 직접 찾아가서 “나는 진수 동무의 얼굴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예요…… 나는 진수 동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사랑해요.”라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런 고백을 듣고 진수는 당황스러운 참에 갑작스러운 폭격으로 원희와 겨안았다. 이런 본능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진수는 원희를 뿌리치듯 하며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원희는 어둠 속에 사라진 진수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원희의 1차 화해 시도는 실패로 끝난 셈이다. 그러나 예문 (2-2)에서 볼 수 있듯이 『새조선』의 번역주체는 끝부분에서 “진수는 무엇을 참회했는지 어둠 속에서 원희의 불타는 눈만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다시 썼다. 이렇듯 『새조선』에서는 진수에게 ‘참회’라는 정동을 첨가함으로써 진수의 반응을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이를 통해 원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계기를 마련했다.

(3-1)에서 볼 수 있듯이 원희의 화해 시도가 실패하자 응선은 다시 진수를 찾아가 원희와의 관계를 해명한다. 그러나 응선의 증언도 진수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응선은 “만일 끝끝내 동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동무나 원희에 대한 우정이 삽시에 무너지고 마네…… 동무를 만나는 날, 나는 원희를 사이에 놓고 자랑하고 싶었던 이 심정을 왜 이렇게 호리게 하는가……”라고 엄청난 실망을 표한다. 여기서 두 사람의 대화는 갑자기 울린 전화벨로 중단되고 응선의 화해 시도도 실패로 끝난다. (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조선』에서 원작과 정반대된 방식으로 이 부분을 개작했다. 진수의 말끝에 “하지만 이제 그런 의심은 모두 풀렸군요!”라는 내용을 첨가함으로써 진수의 태도를 역전시켰다. 이어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순식간에 서로를 끌어안”는 장면 묘사를 덧붙여서 진수와 응선의 화해를 제시한다. 이렇듯 『새조선』에서 2차례의 소통을 통해 인물 간의 오해와 갈등은 모두 해결된다.

그러나 원작에서 진수의 마음을 역전시키는 마지막 관건은 서동무의 증언이다. (4-1)에서 나타나듯이 폭풍우 속에서 고압선을 연결할 때 서동무는 파편에 맞아 다친다. 진수가 서동무를 업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서동무는

“용서하오… 응선이와 원희 동무가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요 며칠 간 확실히 알았소.”라고 중얼거리며 참회한다. 서동무의 증언을 듣고서야 진수의 의심이 철저히 풀리게 된다. 고압선이 다시 이어지듯이 ‘숭고한 우정’과 ‘참된 사랑’을 매개로 세 사람 간의 삼각관계는 든든한 동지 관계로 재구축된다. 『새조선』에서 응선의 해명을 듣고 오해가 이미 풀렸기 때문에 고압선 연결 시 서동무는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이처럼 원작에서 진수의 흔들림으로 인해 계속 지연된 화해는 『새조선』의 다시 쓰기를 통해 가속화된다. 이에 따라 진수의 소심한 일면이 약화되고 그는 더 건전한 제대군인으로 전환된다. 이런 진수야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 전후 건설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노력영웅(勞力英雄)’이라 할 수 있다.

「고압선」은 진수와 원희의 사랑을 둘러싸고 전쟁영웅이 노력영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재현한다. 그러나 전쟁 속에서 후방 인민의 투쟁과 저항을 후면으로 밀려나 남녀 사이의 교묘한 갈등을 재현하는 내용은 당시 북한 문단에서 문제작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 1954년 「고압선」은 “전형성으로부터 이탈한 작품”이라면서 “형상의 편협화와 왜소화를 초래”<sup>49)</sup>한 작품으로 비판을 받고 북한 문학사에서 제명(除名)되었다. 다행히도 평론계의 비판을 받기 전에 「고압선」이 이미 『새조선』을 통해 중국어로 번역하여 중국 독자와 만났다. 이렇듯 한국전쟁기 『새조선』은 북한 문학장에 일어난 다양한 흐름을 포착하여 이를 중국어로 번역함으로써 북한 문학의 이채로운 국제적인 맥락을 구축했다.

49) 김명수, 「우리 문학에 있어서의 전형과 갈등 문제 -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투쟁과 관련하여」, 『조선문학』, 1954. 1, 124-125쪽. 오태호, 「한국전쟁기 북한 문예지 『문학예술』(1950.6~1953.8)에 게재된 대표 단편소설 연구 - 동시대적 평가의 양가성과 인물의 내면 풍경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71호, 우리문학회, 2021, 235쪽 재인용.

## 5. 나가며: ‘정동적 주체’에서 ‘관념적 주체’로

본 연구는 「불타는 섬」, 「사과나무」, 「고압선」이라는 세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본과 『새조선』 번역본의 차이를 대조하면서 한국전쟁기 북한 영웅서사에 형상화된 사랑의 양태와 중국어 번역 양상을 검토했다.

전투 과정을 재현하는 전형적인 전쟁서사와 달리, 「불타는 섬」, 「사과나무」, 「고압선」은 여성 인물을 영웅서사에 담아 전쟁통에 나타난 세 가지 사랑의 양태를 제시한다. 「불타는 섬」은 분대장 리대훈과 통신수 김명희의 애정담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희생을 각오하는 동력으로서의 ‘사랑’을 서사화한다. 「사과나무」에서 부상병 이찬식과 간호병 김현숙의 애정담을 통해 전쟁통에 사랑을 이루는 ‘올바른’ 방식을 제시한다. 현숙의 사랑은 전투영웅의 모든 결함을 포용하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행동을 통해 체현한다. 즉 남성 영웅은 헌신적으로 전투만 하면 이성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획득할 수 있다는 보상 논리를 암시하고 있다. 「고압선」에서는 영예군인의 후일담을 통해 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상징으로서의 ‘사랑’을 서사화한다. 전쟁으로 끊어진 사랑이 다시 이어지면서 진수는 ‘조국 해방’을 위해 몸을 바친 ‘전쟁 영웅’에서 전후 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노력 영웅(勞力英雄)’으로 거듭난다. 이상 세 작품에서 남녀주인공 간의 사랑은 모두 영웅주의를 공고히 하는 정동적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전쟁터에서 꽃피는 사랑의 이야기는 국내 독자뿐만 아니라 전쟁터 밖에 있는 외국 독자에게도 크나큰 호소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새조선』의 번역 주체는 수많은 전쟁서사가운데 이 세 작품을 선정하여 중국 독자에게 로맨틱한 영웅주의를 전달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황건, 김영석과 이상현이 제시한 사랑의 양태는 서로 다르지만, 애정담에 수반된 정동의 양상을 사실적으로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불타는 섬」에서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명희에 대한 ‘애정’ 가운데 방황하는 대훈, 「사과나무」에서 간호사로서의 책임감과 찬식에 대한 불만 사이에 흔들리는 현숙, 「고압선」에서 우정과 사랑의 딜레

마에 빠진 진수. 원작에서 세 작가는 영웅 내면의 긍정적인 정동과 부정적인 정동을 리얼하게 재현하고 문학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인다.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철저히 무장된 영웅과 달리, 이 세 작품은 북한 전쟁문학의 도식주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서사적 리얼리티를 재현하고 전쟁영웅의 이례적인 계보를 형성한다. 그러나 남녀주인공의 정동 양상에 대해 『새조선』의 번역 주체는 원저자와 현저한 입장 차를 보인다. 대외홍보 임무를 맡은 『새조선』의 편집진과 번역진은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수행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영웅의 애정담을 중국어로 번역한 과정에서 엄격한 자아 검열을 수행한다. 그들은 정동의 양상을 면밀하게 구분하여 서로 다른 번역 방식을 채택한다. 김일성이 제시한 영웅주의 기준에 따르면 괴로움, 불만, 흔들림 등 부정적인 정동은 영웅의 전투 의지와 전투력을 와해시키는 장애물로서 삭제해야 하는 대상이다. 반면에 사명감, 책임감, 애국심 등 긍정적인 정동은 전쟁 승리를 확보하는 보장(保障)으로서 가급적 강조하고 필요하면 추가 번역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불타는 섬」에서 리대훈의 괴로움, 「사과나무」에서 찬식의 무례함, 「고압선」에서 진수의 패배감은 『새조선』에서 교묘하게 은폐된다. 이에 따라 남성 영웅은 ‘정동적 주체’에서 영웅주의로 철저히 무장된 ‘관념적 주체’로 재형상화된다.

세 작품에서 다른 애정담의 또 다른 공통점은 사랑이 싹트고 깊어진 과정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불타는 섬」에서 명희는 “저는 중대장 동무며 중대 동무들 때문에 지금은 제 일생의 가장 귀중한 시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라는 고백을 먼저 털어놓는다. 이런 솔직한 발화를 듣고 나서야 대훈은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된다. 「사과나무」에서 찬식의 무례한 태도와 무단탈출에도 불구하고 현숙은 간호와 수혈을 통해 찬식을 죽음에서 무려 3번이나 구출해낸다. 「고압선」에서 원희는 딜레마에 빠진 진수를 찾아서 “나는 진수 동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사랑해요.”라고 당당하게 고백함으로써 진수의 열등감을 덜어준다. 이렇듯 세 편 애정담에 나타난 여성 인물은 남성 영웅보다 더 입체적인 내면 풍경을 소유한 정동적 주체로 형상화한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새조선』에서



여성 인물의 내면묘사와 대화를 대폭 삭제하거나 다시 써서 여성 인물은 사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정동적 주체’에서 남성영웅의 굳건한 전투 의지와 순결한 도덕성을 입증하는 ‘관념적 주체’로 변모된다.

이렇듯 원천텍스트와 번역텍스트의 차이를 통해 미학과 이데올로기의 길항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황건을 비롯한 문학자들은 남녀주인공의 복잡한 내면세계를 리얼하게 형상화함으로써 동포 독자와 ‘정동적 연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포화 속에서 꽃피는 사랑 이야기는 전쟁의 체험을 같이하는 동포 독자의 공감을 일으키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터 밖에 있는 외국 독자에게는 사랑이 이루어진 과정에 수반된 불안, 불안, 오해 등 부정적인 정동은 영웅주의에 대한 오독, 심지어 전쟁에 대한 반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새조선』의 번역 주체에게 있어서 중국 독자와 ‘정동적 연대’보다 ‘이데올로기적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은 영웅 내면에 나타난 불안, 불안, 오해 등 부정적인 정동을 은폐하고 그 빈자리에 애국심, 사명감과 같은 관념들을 주입했다. 그 결과, 애정담에 나타난 남녀주인공들은 입체적인 내면세계를 지닌 ‘정동적 주체’에서 영웅주의를 구현하는 ‘관념적 주체’로 재형상화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0년대 초반 북한 영웅서사의 애정담에는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포획되지 않았던 역동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새조선』의 번역 주체는 이데올로기의 규율에 따라 ‘사랑’이 형성된 과정에 수반된 정동의 역동성을 규격화했다. 구체적으로, 「불타는 섬」에서 분대장과 통신수의 사랑을 ‘전우애’로, 「사과나무」에서 부상병과 간호병의 사랑을 영웅의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고압선」에서 영예군인과 옛 애인의 사랑을 영웅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기제로 다시 썼다. 이를 통해 전쟁 중에 영웅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전쟁 끝난 후에 영웅의 노동력을 회복하게 해주는 ‘사랑’이야말로 대외홍보의 목표에 부합하는 영웅 애정담의 정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新朝鮮』 『문학예술』

김영석, 「사과나무」, 『문학예술』, 1953.1.

리상현, 「고압선」, 『문학예술』, 1953.8.

황건, 「불타는 섬」, 『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선집 : 1900~2000』, 문학과지성사, 2007.

金永錫, 「蘋果樹」, 『新朝鮮』, 1953.3

李相鉉, 「高壓線」, 『新朝鮮』, 1953.9

黃健, 「燃燒著的孤島」, 『新朝鮮』, 1952.10

### 2. 단행본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 한국 사회의 정동을 묻다』, 갈무리, 2012.

\_\_\_\_\_, 『음란과 혁명 -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김선려 · 리근설 · 정명옥, 『조선문학사 11: 해방후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나이절 스리프트 외 지음, 『정동이론: 몸과 문화 · 윤리 · 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역, 갈무리, 2015.

브라이언 마수미, 『정동정치』, 조성훈 옮김, 갈무리, 2018.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1945-1958)』,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94.

황건 외 지음, 『燃燒的月尾島』, 柳樹人 역, 上海: 新文藝出版社, 1953.

### 3. 논문

김은정, 「문학예술에 나타난 폭격의 서사 - 한국전쟁기 미국 폭격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4, 민족문학사학회, 2014, 443-474쪽.

\_\_\_\_\_, 「북한의 한국전쟁 소설에 나타난 국가서사 - 조국해방전쟁승리를 위하여 1~4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66,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7, 9-33쪽.

김지영, 「오늘날의 정동 이론」, 『오늘의 문예비평』 100, 2016, 360-373쪽.

배상미,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소설에 재현된 뼈대를 둘러싼 정동과 출판문화」, 『우리어문연구』 65, 우리어문학회, 2019.

오태호, 「해방기(1945~1950) 북한 문학의 ‘고상한 리얼리즘’ 논의의 전개 과정 고찰 - 『문화전선』, 『조선문학』, 『문학예술』 등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6, 우리어문학회, 2013, 319-358쪽.

\_\_\_\_\_, 「해방기(1945~1948) 북한 문예지에 게재된 대표 단편소설 연구 - 인물 형상화의 경직성과 유연성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0,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271-305쪽.

\_\_\_\_\_, 「한국전쟁기 북한 문예지 문학예술(1950.6~1953.8)에 게재된 대표 단편소설 연구 - 동시대적 평가의 양가성과 인물의 내면 풍경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71, 우리문학회, 2021, 217-243쪽.

이경림, 「사랑의 사회주의적 등정의 불가능성 - 강경애의 『인간문제』론」, 『한국현대문학연구』 55, 한국현대문학회, 2018.8, 69-107쪽.

최병구, 「신체와 정동: 1930년대 프로문학의 문화정치적 역학」, 『한민족어문학』 77, 한민족어문학회, 2017, 301-330쪽.

최성희, 「정동(affect), 스케치」, 『오늘의 문예비평』 128, 2023, 222-243쪽.

황지영, 「일제 파시즘기의 과학자 연애서사와 정동 관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9, 185-206쪽.

##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Love Story in the North Korean War Novel

Focusing on Chinese Translation of the Propaganda Magazine *New Korea*

Deng Qian\*

This study focuses on the love story presented in *Burning Island*, *Apple Tree*, and *High Voltage Line*, contrast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ource texts and the Chinese translations of *New Korea* to examine the forms of love story depicted in North Korean heroic narratives and the aspects of translation. In *Burning Island*, the love story between the coastal artillery squad leader and the signal operator demonstrates love as a driving force that overcomes the fear of death and embraces sacrifice. *Apple Tree* portrays love as a sense of duty in caring for the wounded hero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a soldier and a nurse. In *High Voltage Line*, love is narrated as a symbol for overcoming the trauma of war through the reflections of a former soldier. Thus, the love stories of heroes blossoming on the battlefield are presented in a different light to Chinese readers through the translations in *New Korea*. In the Chinese version of *Burning Island*, the love between the protagonists is framed as comradeship; in *Apple Tree*, it is depicted as a reward for the hero's dedication; and in *High Voltage Line*, it serves as a means to heal the trauma of the discharged soldier. This illustrates that love, which enhances the hero's combat effectiveness during the war and restores their labor capacity afterward, aligns with the goals of external propaganda and embodies the essence of heroic love narratives.

---

\* Ocean University of China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ource texts and the Chinese translation texts reveal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aesthetics and ideology in North Korean literature. The North Korean Writers aimed to secure aesthetic autonomy by vividly portraying the diverse emotional aspects of heroes, while also establishing an affective solidarity with North Korean readers. However, for the translators of *New Korea*, building an ideological alliance with Chinese readers was a more urgent task than fostering this affective solidarity. They obscured negative emotions such as anxiety, dissatisfaction, and misunderstandings that appeared in the heroes' inner lives, replacing them with concepts like patriotism and a sense of mission. As a result, the male and female protagonists in the love narrative were reconfigured from affective subjects with complex inner worlds into ideological subjects embodying heroism.

**Key words:** Korea War, North Korea Literature, Chinese translation, love story, affect,  
*New Korea, The Burning Island, The Apple Tree, High-Voltage Line*